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매 판매, 3개월 연속 상승…휘발유값 상승 불구
- Reuters: 미 기업 재고 4년 만에 최대폭 증가
- Reuters: 수입 에너지 상승에 4월 미 수입 물가 급등
- WSJ: 새 연준 의장 지명자, 상원서 최종 인준, 54대 45
- WSJ: 보스톤 연은 총재, 인플레 리스크로 '금리 인상'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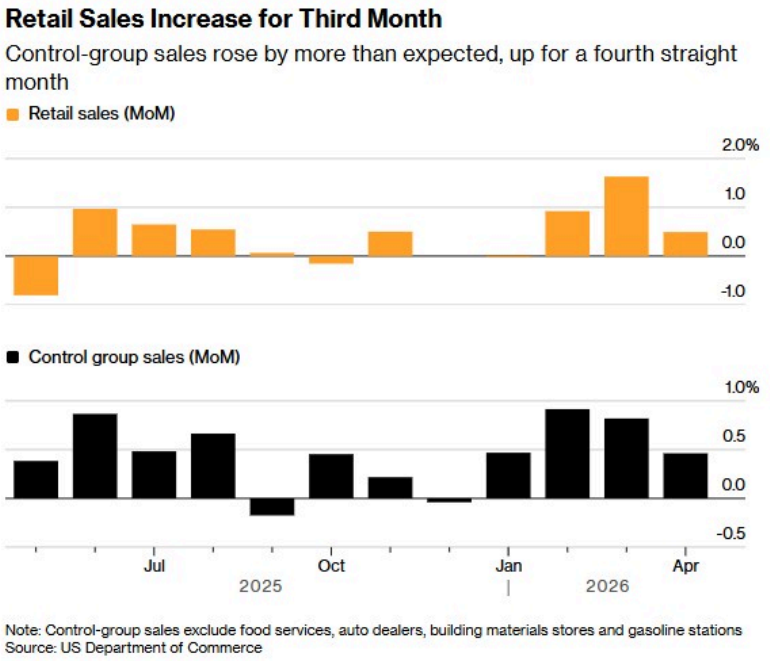
[미중 정상회담]
- YahooFinance: 미중 양국 정상회담, 이란 전쟁 관련 진전 없어
- CNBC: 미 재무장관 “미국이 AI분야서 앞서 있기에 대화 가능”
- YahooFinance: 시진핑, “중국은 미 기업에 더 개방하겠다”
- YahooFinance: 엔비디아 CEO 방중으로 AI 칩 중국 수츨 허용될까?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Rise for Third Month Despite Higher Gas Prices
미 소매 판매, 3개월 연속 상승…휘발유값 상승 불구

- 4월 미 소매 판매가 3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 3월에 소매 총 구매 가격이 1.6% 상향 조정된 후에 4월 들어 0.5% 상승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인플레 조정을 감안하지 않았기에 상승폭은 전체 판매량보다는 가격 상승폭을 반영한 것이다.
- 이 중에 스포츠 의류, 온라인 판매, 전자 제품, 의 상승이 큰 반면에 자동차 판매는 줄었다.



기사

Reuters: US business inventories post biggest gain in nearly four years in March
미 기업 재고 4년 만에 최대폭 증가

- 3월 미국 기업 재고가 도매업체의 재고 확충에 힘입어 약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연방 상무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 이러한 재고 증가는 1분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정부는 1분기 GDP 성장률(연율 2.0%) 중 재고 투자가 0.40%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0.5%)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다.
- 다만 재고 급증은 단기적 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나, 향후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생산 감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

Reuters: US import prices surge in April as fuels post biggest gain in four years
수입 에너지 상승에 4월 미 수입 물가 급등

- 미국 수입 물가가 4월 들어 급등했다. 특히 연료비가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이 지원하는 이란과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 연방 노동부가 오늘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1.9% 상승했다. 이는 0.9%로 상향 수정된 3월 치에 이은 가파른 오름세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를 크게 웃도는 수치.
- 4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수입 물가는 총 4.2% 치솟았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2.3%를 기록했던 3월의 연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기사

WSJ: Kevin Warsh Is Confirmed as Fed Chair in 54–45 Senate Vote
새 연준 의장 지명자, 상원서 최종 인준, 54대 45

- 새 연준 의장 후보 Kevin Warsh가 어제 수요일 상원에서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연준의 제17대 의장직 인준을 통과했다. 이는 1977년 이후 가장 근소한 표차.
- 오는 금요일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은 사퇴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로 남을 계획이다.
- 과거 연준에 비판적이었던 Warsh는 현재 과열된 인플레이션 지표와 백악관으로부터의 연준 독립성 문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사

WSJ: Boston Fed's Collins Flags Rate-Hike Scenario as Inflation Risks Tilt Higher
보스톤 연은 총재, 인플레 리스크로 '금리 인상' 경고

- 보스톤 연은 총재 Susan Collins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비록 이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전망은 아니지만,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결국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힐 확률은 낮아진 반면, 고물가가 지속되는 악화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커졌으며 이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미중 정상회담]

YahooFinance: Trump-Xi summit offers little movement on the war in Iran as pressure builds on White House
미중 양국 정상회담, 이란 전쟁 관련 진전 없어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목요일 비공개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향후 군사화 및 통행료 징수 금지에 합의했다.
- 그러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이나 중국 측의 확고한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려 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도록 압박을 가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CNBC: U.S. can hold AI talks with China because 'we are in the lead,' Bessent tells CNBC as nations plan safety protocol
미 재무장관 "미국이 AI분야서 앞서 있기에 대화 가능"

- 미국 재무장관 Scott Bessent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AI 분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에” 중국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술 발전에 따른, 미국이 주도한 공동 운영 가이드라인 공개했다.
- Bessent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중 “양국이 협력해 테러 단체나 범죄 조직의 회사 핵심 정보의 탈취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이라며, “우리가 앞서 있기에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우위였다면 지금 같은 대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편, 이 같은 발표에도 관련 산업 지표는 전일 대비 3% 감소하며 시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기사

YahooFinance: Xi Jinping tells CEOs that 'China's door will only open wider' as Trump's two-day visit gets underway
시진핑, “중국은 미 기업에 더 개방하겠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목요일, 미국 CEO 대표단을 환영했다.
- 기업인들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과 양자 회담 일부에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시 주석에게 한 명씩 직접 소개했다.
- 시 주석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의 개혁개방에 깊이 관여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 이날 모임에는 테슬라의 Elon Musk, 엔비디아의 Jensen Huang, 애플의 Tim Cook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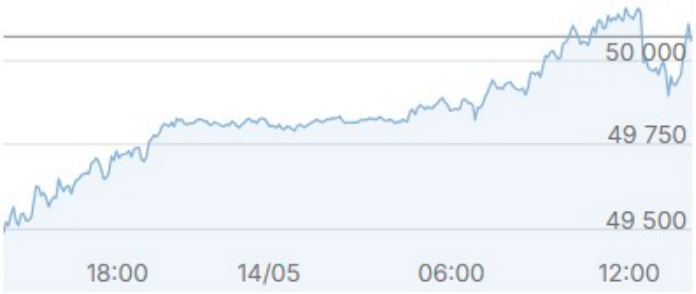
기사

YahooFinance: Exclusive-US clears H200 chip sales to 10 China firms as Nvidia CEO looks for breakthrough
엔비디아 CEO 방중으로 AI 칩 중국 수출 허용될까?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을 중국 기업 10곳에 판매하도록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 이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직접 중국 행평에 나섰다. 당초 백악관 대표단 명단에는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합류했으며,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알래스카에서 그를 직접 탑승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행보가 중단된 H200 수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0,108.80	+415.6	+0.84%
US 500	7,504.90	+60.7	+0.81%
Dow Jones	50,085.95	+392.75	+0.79%
S&P 500	7,505.30	+61.05	+0.82%
Nasdaq	26,656.02	+253.68	+0.96%
S&P 500 VIX	17.91	+0.04	+0.22%
Dollar Index	98.69	+0.267	+0.27%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4.75	-4/32	5.009	-0.033
10-Year Note	4.375	1/32	4.458	-0.011
7-Year Note	4.125	23/32	4.281	-0.013
5-Year Note	3.875	0/32	4.121	-0.001
3-Year Note	3.875	0/32	4.028	0.004
2-Year Note	3.75	0/32	3.996	0.004
1-Year Bill	0	0/32	3.795	0.005
6-Month Bill	0	0/32	3.728	-0.005
3-Month Bill	0	0/32	3.683	-0.006
1-Month Bill	0	0/32	3.644	-0.01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